

아우렐리우스의 동양철학적 사고

민 기 식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명상록’의 저자인 안토니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Antoninus Marcus Aurelius)는 로마에서 탄생, 호화로운 생활속에서 성장하였다. 11세때부터 철학에 심취하여 후일에 픽테토스와 함께 후기 스토아 학파를 이끌어 나갔다. ‘명상록’은 그가 스토아 학자가 되어 스토아 철학을 연구하고 몰두한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명상록’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스토아 철학은 그리이스에서 로마로 전해진 이후 그 진가를 발휘하였다. 스토아 철학의 엄격한 가르침은 로마의 위엄을 간직하고 건실한 생활을 이끌어 가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다. 대 스토아 학자인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이기 이전에 한 사상가요 모델리스트였는데, 그는 유년시절부터 엄격한 규율속에서 자라, 그 영화로운 보좌

에 앉아 천하를 호령할 망정, 사생활은 극히 간소하고 순박하고 청빈하였다고 전해진다. 진리를 지향하며 깨끗한 삶을 살았던 아우렐리우스의 심오한 철학적 사고는 ‘명상록’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전부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는 ‘배움에 대한 명상’, ‘인생에 대한 명상’, 그 외 죽음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아우렐리우스다운 교훈과 격언이 실려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준다.

‘명상록’을 읽어 가면서 특별히 흥미로웠던 점은 아우렐리우스 사상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동양의 철학사상과 굉장히 가깝게 근접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기도 한데 ‘자연에 대한 외경심’, ‘순리를 따르며 본성에 어울리게 살 것’을 주장한 점

등은 동양의 불교(佛敎)사상과 그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스토아 학파의 가장 큰 특성인 금욕과 절제정신은 우리의 유학(儒學)에서 그 흡사함을 찾을 수 있다.

다음에서는 ‘명상록’에 스며 있는 동양적 사고방식을 초점으로 잡아 아우렐리우스의 사상을 간단히 소개하면 ‘명상록’의 참다운 본론은 ‘제1장 배움에 대한 명상’을 제외한 제2장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제1장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훌륭한 스승, 조상, 참된 친구들 때문이었다며 신께 감사를 돌리는 내용으로서 모든 이에게서 배움을 얻었던 아우렐리우스의 겸손됨을 엿볼 수 있다. 제2장은 ‘인생에 관한 명상’으로서 소구절이 17개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늘 잊지 않으며 사는 절제된 이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오래 산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도 죽음에 이르러서는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인간이 소유한 것은 현재뿐이므로, 잃을 수 있는 것 또한 현재의 순간뿐이다.”라고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집착과 욕망에 죽음이라는 도구로써 경종을 울리고 있다.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부딪히게 될 죽음의 한계를 자주 망각하고 있음을 아우

렐리우스는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동양의 불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불교의 삼법인(三法印)에는 일체개고(一切皆苦)라는 말이 전해진다. 이 말은 “언젠가 내가 실재하며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태도에서 모든 고뇌가 시작한다.”는 뜻이다. 아우렐리우스의 불교적 사고는 제9장 ‘생활에 대한 명상’에도 나타난다. “지금 눈앞의 모든 사물이 이내 사라져 버리고, 이러한 소멸을 바라보던 사람도 눈깜짝할 사이에 소멸될 것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순간보다는 영원성을 추구했던 거시적인 인생관의 소유자였던 것 같다. 아우렐리우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이다. 그는 그것이 질서이든 카오스이든 그저 자연이기 때문에 상응하여 조화를 이루고, 인간은 자연의 합리성에 대하여 한 치의 의심없이 또 하나의 자연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옳의 본성이 지각이나 이성이 없고 다른 것에 방해받을 수 있는 자연의 일부본인 것에 비해,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공정하고 지혜로운 자연의 일부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인간을, 자연에 포함되어 자연의 법칙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존

재로 보았던 것이다.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연의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르치고 있다. “인생이라는 훌륭한 연극에서는 3막만으로도 멋진 드라마가 될 수 있다. 자연만이 이 연극을 언제 끝낼 것인가 결정하며, 당신을 고용하고 또, 해고시킬 수 있다. 당신은 이 자연의 결정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다.”

아우렐리우스에게 자연은 아마도 노자가, 또는 장자가 주장하는 도(道)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일찍이 유학에서 주장하는 우주 만물의 본체, 즉 도(道)는 우주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원이요 우주를 우주일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인 원리라고 하였다. 명상록에서 아우렐리우스가 보여 준 자연에 대한 외경심은 자연을 모든 사물의 생성·소멸을 지배하는 근본이나 형이상학적 근본원리라고 본 점에 있어서 유학에서 신봉하는 도(道)의 정신과 아주 비슷함을 발견할 수 있다. 아우렐리우스의 사상은 불교에도 많이 근접해 있다.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慈悲), 인연생기(因緣生氣) = 연기설(緣起說),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등은 명상록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9장 ‘생활에 관한 명상’에서 아우렐

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오늘 온갖 괴로움에서 해방되었다. 아니, 내가 모든 근심을 떨쳐내 버렸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간밤에 썩은 해골의 물을 마신 것을 알고 아침에 모든 것을 토해 버렸다는 원효의 일화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일을 겪은 후 원효는 고통도 행복도 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아우렐리우스 또한 마음을 다스림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를 알고 있었을까? 아우렐리우스는 연기설(緣起說) 과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듯 싶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우주가 처음 생성될 때부터 이미 준비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 원인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까마득히 먼 옛날의 일에서부터 현재의 당신에게 하략”

이와 같이 ‘명상록’에서 발견되는 아우렐리우스의 동양철학적 사고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다. 아우렐리우스의 독립된 사상을 동양 철학에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은 아닌가 싶어 스스로 부끄러운 점도 있으나 ‘항상 진리는 서로 통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깨달음을 새롭게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스토아 학파답게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이성적 능력의 수양 등을 아우렐리우스는 이 책 ‘명상록’을 통해 모두 보여주었던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다운 그의 가르침이 때로는 너무도 엄격

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윤리와 도덕의 잣대가 흔들리는 요즘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한다. ☺

시사용어 해설

• 리콜제(Recall制)

소환수리제. 자동차에서 비행기까지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제도로써 자동차와 같이 인명과 바로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해 놓고 있다. 2만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경우 부품을 일일이 검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대부분 표본검사만 하기 때문에 품질의 신뢰성이 완벽하지 못하다. 이에 대한 사후보상으로 애프터서비스제와 리콜제가 있는데 애프터서비스제가 전혀 예기치 못하는 개별적인 결함에 대한 보상임에 비해 리콜제는 결함을 제조사가 발견하고 생산일련번호를 추적, 소환하여 해당부품을 점검·교환·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리콜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우편으로도 연락해 특별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 편집실 -